

“Take only pictures!” … 등산로 이용 에티켓과 주의사항

한국인의 산 사랑은 남다른 테가 있다. 한 조사에 따르면 등산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.

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. 특히 남가주 지역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1시간 이내면 잘 닦인 등산로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곳 저곳에 등산로가 많다.

하지만 남가주의 산은 한국의 산에 비해 주의해야 할 것도, 등산하면서 지켜야 할 것도 많다. ‘에이,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!’ 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, 눈총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. good4fun.com이 미국 공원이나 등산로 이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. 각 공원이나 등산로에 따라 그곳에서만 적용되는 규칙들도 있으니 공원 이용 전에 미리 파악해 이용 시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.



■ 일반적인 주의사항

- 개방 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사유지가 있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다(Ride on Open Trails Only).
-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(Do not feed wild animals).
- 공원에서는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고, 어떤 것도

두고 오지 않는다(Take only pictures, leave only foot prints).



지나가도록 길을 양보해야 한다. 말을 타고 있는 경우 말을 멈추고 지나가도 좋은지 상대에게 물어본다. 또 호수, 시내 또는 샘 등 물 근처 200 피트 이내에 말을 끓어 두지 않는다.

- 허용된 등산로만 이용한다(Use open trails only).
- 항상 다른 이용자에게 길을 양보한다. 휴식을 취할 때는 등산로 가장자리를 이용한다(Always yield to other trail users).



라임병에 걸리면 열, 두통, 큰 과녁모양의 피부발진이 생기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. 그러므로 등산 후에는 등산복을 살균 세탁하고 귀가 즉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.

■ 야생동물과 관련한 유의사항

미국의 산에는 한국의 산에 비해 야생동물이 많다. 그 가운데에는 방울뱀, 마운틴 라이언 등 등산객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. 그러므로 산에 오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.

- 이용객이 적은 공원이나 등산로는 여러 명이 같이 등산하는 것이 좋다.



• 곰은 음식 냄새를 키아온다. 가능한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으로 준비하고 음식은 텐트가 아닌 지정된 곳에 보관한다. (동물이 많이 나오는 공원의 캠프장에는 보통 음식보관함이 있다.)

-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려 한다. 주로 갑자기 만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. 한적한 곳을 지날 때에는 스틱 등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질려 동물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.

-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동물을 만나면 어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지 않는다. 가능하다면 동물이 있는 곳을 피해 가거나 동물이 스스로 자리를 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.

사진=shutterstock

www.unicaresurgery.com

애나하임

쾌적한 병원시설에서 만족한 의료기술을 경험하십시오.

UNICARE SURGERY CENTER

유니케어 수술센터
Tennis Elbow 시술센터



- 테니스엘보우 시술 • 관절수술/골절수술/척추수술
- 각종 통증수술

- ▶ UNICARE SURGERY CENTER
- ▶ Orthopedic/Podiatry/Plastic/Hand & General Surgery
- ▶ 줄기세포(Stem Cell), 자가혈청치료(PRIP)
- ▶ 각종 수술 상담

미국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와
진료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, 시술을 해드립니다.

각종 PPO보험/교통사고, 직장상해보험/메디케어 취급, 여행자보험, 기독의료상조



UNICARE
SURGERY CENTER

714-332-5000

1741 W. Romneys Dr. #B, Anaheim, CA 92801

